

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Development of the College Curriculum using the Competency-based Model

최길성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통신과

Kil-Sung Choi(kschoi@dima.ac.kr)

요약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는 ‘역량’이라는 단어는 학문과 지식을 중시했던 기존 교육이 현실 사회 적응력을 증시한 교육으로 변화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전문대학의 교육도 장차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역량기반 교육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도입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표준을 직업교육의 교과내용으로 반영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역량기반 교육과정 | 직업교육 | 전문대학 교육과정 |

Abstract

Competency, a frequently mentioned word in connection to the recent education reform, is often used in discussing a paradigm shift from the education focusing on knowledge to the one emphasizing students' adaptability to the real social life. In order to foster talents equipped with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geared to the requirements of the jobs, education at college level also need to be improved by reforming the current curricula. This paper aims to develop better ways for college education based on the scrutiny of the pros and cons of the current curricula of colleges. To this end, it reviews preceeding studies on this subject and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We analyse whether this model can be applied to college education or not. By indicating specific ways to apply the standards of the basic-level job competency developed b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o job training courses, the study also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at college.

■ keyword : | Competency-based Curriculum | Job training | Curriculum at College |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이나 사

회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제는 지식, 기술, 정보 만이 아니라 직업이나 직종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주

접수번호 : #100830-004

접수일자 : 2010년 08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9월 28일

교신저자 : 최길성, e-mail : kschoi@dima.ac.kr

도적 학습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창의력 갖춘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19].

산업사회에서 대학들은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유리시킨 채, 고고한 상아탑으로 존재하면서 학문과 지식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였다. 대학의 학력은 산업사회와 연계시키는 신호기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 사회진출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다. 이에 비해 지금은 현장중심의 교육 및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졸업장은 노동시장에서 보증수표가 아니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과정을 다니거나 실령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2].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인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그동안 전문직업인 양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성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전문대학들이 존립마저 위태로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게다가, 학습자 기초학습능력의 저하와 학습욕구 상실, 중도탈락률의 증가, 질적인 취업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대학도 더 이상의 악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15].

현재 전문대학들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상대적 취업률 비교(2008년 4년제 68.2%, 전문대학 86.5%)를 통한 입학 경쟁력 확보,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28%)에 따른 성인학습자 유인, 4년제 대학 편입학 자원 확보를 위한 상위교육기관 지향적인 교육제공 등을 들 수 있다[23].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방안이라 사료되며, 오히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4년제

대학의 하위교육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교육의 질만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요컨대, 수요자가 만족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학습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이 학습해야 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교육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그 답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9]. 다만, 전문대학 교육은 직업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하여 장차 직업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이 사회 현실과 괴리되어 졸업장이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개혁과 관련되어 '역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즉 '역량'이라는 개념은 교육과 사회 요구를 연계시켜주는 인적자본 지표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등장하여 많이 쓰이고 있다[7]. 또한 OECD가 2003년 '역량'을 '현대사회의 복잡한 삶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북미와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이 '역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11][20][29].

국내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수행한 많은 연구결과에서 기초직업능력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하위 요소를 개발하였으며 교육과정 과 학습활동에 참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5][6].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직업교육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와 역량기반 교육에서의 역량과는 별다른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인 인재 양성에 교육목표를 둔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 같은 연구 방법 및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선행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역량기반 교육모델의 직업교육과정으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교·검토한다. 셋째, 직업인으로서 기초능력 및 실천적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개선시키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기본 원리는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의 변화를 이끌며, 반영하고, 또 그 시대와 사회변화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17]. 이는 직업사회가 변하게 되면 교육의 가치도 변화 되어야하므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대학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직업교육과정은 일반 대학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25].

- 직업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
-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역동성
- 학습목표에 대한 명확성
- 학년 또는 과목간의 연계성
- 교육내용의 기본가치에 근거해야 하는 사실성
- 교수·학습방법에 부합성
-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성
- 미래 요구반영을 위한 미래성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현재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는데 준거로 삼았다. 또한 참고문헌들[1][2-4][7][9][22][23]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1) 역동성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의 자원이 되어 지식을 생

산하고 활용하고 재생산하여 지식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과정도 그 사회의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주로 직무분석에 의해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직무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실무 적용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직종이나 기술이 변화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면 교과목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가령 기존의 산업사회가 지식과 기술을 갖춘 근면·성실한 인재를 필요로 하였다면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실천적 지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사회가 급변하는 지식 사회의 교육과정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2) 공급자 중심의 교육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간격차이가 있는 현실을 진단해보면 수요자의 변화된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컨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로 한다.

초창기 전문대학들은 학문중심의 학과 편제로 출발하여 4년제 교육과정을 축소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공급자 입장에서 교과목들을 나열한 형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문식 교육과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거나, 기술·기능 중심의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훈련수준에 가까운 교육에 일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직업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산업체와의 간격도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수 밖에 없다.

(3) 교육목표와 방향이 불명확하고 직업교육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은 학문과 지식위주의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형태와 산업체 수요를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이 혼재되어 있어서 기준설정이 모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직업교육에서는 ‘직업’을 강조하여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존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이론 중심의 4년제 대학조차 취업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강조하는데 반해, 전문대학이 4년제 자유교육 또는 지식위주의 교육을 모방하여 추구하거나 4년제 편입을 위한 하위 교육기관으로 스스로 인정하면서 직업교육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의 전문대학 교육사례[1][18]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육은 개인의 행복한 생활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을 교육의 책무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직업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써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거나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교육이 실생활이나 진로에 무관하지 않게 될 것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4)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관리 미흡

교육과정이 학습목표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야 함에도, 교육과정에 관한 교수 재량과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 교수의 전공에 따라 교과목이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현업의 직무와 직종과 관련되어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가 없이는 심도 있는 교과 분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하여 단편적인 다양한 교과목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교육에 대한 성과물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학사운영제도의 정착

이 요구된다.

(5) 직업인에 요구되는 기초능력 교육의 소홀

직업세계에서의 활동이 지식이나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업인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능력, 상황이나 맥락마다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조직을 이해하고 열정과 도전하는 자세 등은 실상 직업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실천적 사고력이나 암묵적인 지식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이 취업이나 진로를 강조하여 이를 위한 인성교육이나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현행 교양 교육과정은 직업생활과 연계된 내용이기 보다는 학생들이 졸업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인지하는 수준으로 직업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2].

(6) 교과목간 연계성 부족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교육과정은 분절성을 지니며 교과목간 연계가 부족하여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교과목간 협의와 조정 없이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과목간 내용의 중복, 서로 다른 위계 설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직업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일관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전문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현대 사회의 직업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III. 역량기반 교육과정

1. 역량의 개념과 역량모델링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3년 동기와 성취를 연구하던 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David C.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는 지능이 우수하다하여 직무에서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지능대신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IQ테스트나 다면적 인성검사 등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직무에 따라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우수한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가를 알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일과중에 하는 일을 행동목록으로 작성하여, 행동목록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1].

그 이후에 역량에 대한 의미는 사용되는 맥락과 의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나의 예로, 1995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역량 주제 회의에 수백명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의한 바에 의하면, 역량이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 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이다. 이 정의에서 보면 역량이란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역량을 파악하고 측정하고자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려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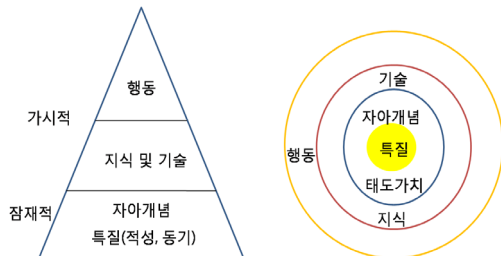


그림 1. 역량모델

[그림 1]은 [32]에 의해 정의된 역량요소를 모델링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동기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으로 흔히, 관심정도 혹은 의욕이 해당되며, 특질이란 신체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말한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태도, 가치, 혹은 자아상을 말하며, 지식은 특정 내용 영역에 있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특정한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빙산모형에서처럼 지식이나 기술 역량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측정이 용이한 반면, 적성, 재능, 동기와 같은 인간의 내면이 지닌 역량은 비가시적인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을 암묵적인 지식 또는 잠재적인 역량이라고 하며, 모델링을 통해서 이를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함을 주목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추출한 후, 이들에 대한 하위요소의 역량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처럼 역량을 추출하는 과정을 역량모델링이라 하며, 교육과정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역량을 행동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역량모델링 교육과정 개발에 유용하게 하려면, 효과를 내기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게 되고, 그 것을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행동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례로 제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의 정의는 학생들의 학습목표로서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 주게 된다.

둘째, 개인의 선천적인 특질은 대체로 변하지 않으나 행동은 수정되고 가르쳐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과 감정이입이 부족한 사람이 감정이입의 특질을 교육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경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걱정에 대한 이해하는 등의 감정이입을 표현하는 행동들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역량요소도 간단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제품을 생산하기위해 원료 성분의 배합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서처럼 단순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은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인가’처럼 복잡한 것들도 있다[21]. 역량모델링을 교육과정에 적용함에 따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학습목표의 명확성

학습목표를 핵심역량으로 명확하게 나타내므로 학습 목표 기준으로 성취도를 비교측정 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역량모델링에 의해 추출된 핵심역량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자기 자신의 행동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해준다. 예컨대, 특정한 직업세계가 요구되는 직업생활에서 자신이 ‘직장이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변화에 적응력을 지닌 인재 교육에 유리

오늘날과 같이 격심한 변화의 시대는 직무와 직종 등 속성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역량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다양한 요구들과 미래의 가능한 요구들에 부합하기 위하여 역량모델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 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 직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적합

역량모델링에서는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지식을 행동요소로 변환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직업능력과 같은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2. 역량기반 교육으로의 변화

역량기반 교육으로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사상, 사회통합의 요구,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이념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지식자본의 지속적인 재생산과 고용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는 인재양성의 요구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를 맞게 된 사회통합의 요구는 초·중등에서 성인에 이르는 전 생애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학문적 지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강조하는 역량기반 교육체제를 요구한다. 역량기반은 인간자본

론과 교육의 책무성에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자본론을 근거로 성인으로까지 확장된 노동기반학습과 인간능력의 자본화가 결합된 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인간능력의 높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수익률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들이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체제의 혁신을 이끌게 된다.

또한 교육에 투입된 자원보다 실제 교육을 통해 획득된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최근 결과중심의 교육 책무성 이론은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혁신하려는 역량기반 교육의 기본개념이 되고 있다[12][7]. 역량기반 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내용의 변화

· 단순한 지식보다는 암묵적 차원의 지식과 실제적 적합성을 강조

역량은 단순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인식 주체에게 암묵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으며, 고도의 판단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지식의 차원을 강조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체화되는 지식이다. 예컨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면화된 노하우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역량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암묵적 지식으로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재조직되고 확장된다.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이란 절대적 명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세계와의 실천적 교섭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변형된다. 지금까지 교육이 명제로 표출된 지식을 토대로 한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일에만 주력해왔다면 역량기반교육에서는 언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암묵적 지식, 체화된 지식, 경험적 지식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관점에서 지식을 바라본다.

·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기본능력을 강조

OECD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있다. 핵심역량은 삶을 위한

기초능력으로 간주되었던 읽기, 쓰기, 셈하기를 넘어서, 개인의 성공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도전을 직면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을 의미한다[30]. 역량기반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8개의 학습영역과 함께 이러한 학습영역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캐나다 퀘벡주 교육과정 또한 범 교육과정 역량이라는 세 가지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통해 교과 이외의 다른 학습영역을 설정하고 있다[11][29].

·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내용에 반영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국제시장 및 노동환경의 변화는 개인에게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학문지향성을 고수하면서 직업세계의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량 개념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인적자본의 지표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된다. 예컨대,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서의 유능한 인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학교의 학력이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서 직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의 표준을 개발하여 그것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2) 평생학습체제를 강조

· 교육과 직업세계와의 연계를 강조

역량기반 교육은 교육과 직업세계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고립주의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28][34]. 학문적 지식 체계의 교육만으로는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 졸업 후 본인의 적성과 일치하고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원으로 되돌아가는 직장인과 직업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은 학문지향성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필요 및 직업세계의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직업적 요구에 기능하는 직업인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적 성공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학문 위주의 교과에서만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는 없다.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직업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세계를 위한 학습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역량기반교육개혁 하에서는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습득이 주요 교육목표가 될 것이다.

· 교육의 재규정

지식기반사회의 출현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의 주기가 짧아지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평생학습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확장하기 위해 활용하는 모든 학습과정과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계은행, 유네스코,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들 역시 이와 동일선상에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량기반교육에서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교육이 재구조화됨으로써 학교급간, 학교와 지역사회간, 서로 다른 교육기관들이 연계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3) 학습관리체제의 변화

· 학력보다 능력을 강조

학력보다 능력을 강조하는 역량기반교육에서는 형식 교육 뿐만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교육을 통한 학습결과도 중요한 학습 성취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학습과정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학습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즉, 정보화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는 학습이 가능해지고 도처에 학습이 편재된 사회 속에서 학습자들이 습득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다양한 학습관리체제 하에서는 교육과 직업세계의 연결이 중요해지고, 개인의 평생학습이 촉진되며, 학력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해 취득된 실제 능력이 강조될 것이다.

· 엄격한 학습 성취의 질 관리

학습자가 교육기관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의 질은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된다. 이는 학습 성취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계층,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의 학습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최근 역량기반교육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No Child Left Behind' 교육개혁을 들 수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연간 학업성취목표를 수립한 후,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은 감독할 책무를 갖게 됨을 엄격한체도로 관리하고 있다[7].

3. 시사점 및 검토사항

관련연구들[7][10-14]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량모델은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또한 역량기반 교육에서 역량은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직업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7][12][14]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역량기반 교육의 특징을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천적 지식이 강조되고 기본적인 능력과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된다는 점, 교육과 현실사회가 연계된 교육체제로의 구축이 강조되는 점에서 전문대학에서 지향하는 직업교육모델로는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모델을 적용하고자 함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12]에서는 적용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전문대학 교육과정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연관지어 문제점은 없는 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소홀

외부 요구에 기반하여 교육의 목표를 세움으로써, 교육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재적 가치들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학 직업교육은 학문과 지식중심으로 하는 일반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지식 중심의 학생취업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내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인성과 교양을 직업교육과 연계시켜,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별도의 교과로 개설하거나, 전공지식이나 기술교과목에서 통합시켜 학습내용으로 반영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지식이나 기술만을 강조 역량모델링이 비가시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예컨대, 역량에 대한冰山모델에서 역량을 가시적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개념, 특질, 동기, 가치,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수행 이면에 존재하는 가치, 동기, 특질 등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만 추론될 수 있기 때문에 역량기반교육은 궁극적으로 행동주의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행동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기술을 핵심내용으로 교육하는 전문대학 교육에서는 오히려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역량 모델링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행동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고 정확한 분석이 전제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 환원주의 오류

역량의 주요 요소인 지식만 놓고 보더라도 역량을 범주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으며, 직관과 노하우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학습에 의해 전수되는 것이 아님을 비판하고 있다. 본 연구자 관점에서, 동일한 역량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의 요소나 활용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수행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바이나 전공 특성이나 교육목표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전

문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커다란 문제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적용사례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기존에 교육과정에 적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국내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결과는 최근의 일부 논문을 참고할 수 있었다. [9]는 ADEA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역량기반 교육적 철학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하여 역량기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역량기반 접근이 어떻게 가능하고 교육내용을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H회사의 정비직 사원들에 대한 고객응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역량기반교육과정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 바 기업의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사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과 하위역량을 도출하여 적용한 사례 발표 논문이나 HRD나 기업의 직무훈련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모델링기법을 적용한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역량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한 외국의 사례는 호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이들 국가의 교육과정 개혁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1].

- ‘역량’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혹은 관점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먼저 규명하려 했으며 이 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캐나다 퀘벡주는 전체 교육과정 구성에 역량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기존에 교과내용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다른 학습

영역도 교육과정의 틀에 고려하려는 노력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의사소통능력이나 사고력, 창의력 등의 학습영역이나, 캐나다 퀘벡주의 시민성과 공동체, 문제해결력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운영을 적극 강조

역량기반교육과정은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역량과 학습영역 간이나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 간에 통합도 가능하고 교과간에 상호 통합도 가능하다.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시사점으로는, 교육이 사회와의 적합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추진하였거나 시도하고 있고, 이는 전통적인 교과중심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하겠다. 또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비학문적인 요소들도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교과내용에 사회적 삶에서 중요한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것들, 예컨대 대인관계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교육과정 틀 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별도의 학습영역으로 설계한다거나 기존의 교과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VI.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운영방안

전문대학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에는 적합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직업교육에 적합한 교육모델인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에서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모델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에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후,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직업기초능력은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하여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과 무관하게 누구나 갖추어야 할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기초능력을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정형화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모토롤라 대학에서 사용한 방법이다[4]. 이 방법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CBC개발 그룹을 구성하고 사전자료조사과정을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업무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조사·연구한다.
- 2) 해당업무를 가장 탁월하게 수행하는 사원을 2~3명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3)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공통점을 나타내는 도표 작성법으로 원하는 업무 성과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한 후, 필요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도출해낸다. 선정된 우수성과자 대상으로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원하는 업무성과를 비슷한 종류들로 묶은 후 중요도에 따라 필요역량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각 필요역량마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가치를 파악하고 그룹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4)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도출된 필요역량을 기존의 업무와 비교해 보거나, 용어를 수정하거나 관리자의 면담결과를 비교하는 등의 수집된

정보를 비교한다. 때로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실무담당자는 정보수집 능력으로만 국한해서 보는데 반해 관리자는 정보관리능력으로 볼 수도 있다.

- 5) 도출된 성과, 역량, 지식, 가치를 현업의 동료 수행자나 관리자에게 보내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자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검증과정을 거친다.
- 6) 합의된 필요역량 프로파일에 새롭게 발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를 추가하여, 알맞은 학습 지원책, 업무성과 지표나 핵심역량 프로파일 등을 도출해 낸다[4].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고려사항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들은 역량모델링,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 및 모듈에 의해 단위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설계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다.
-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하나의 교과목내에 여러 가지 역량들을 포함시켜 학습내용을 구성하기도 하며, 개별 역량단위도 학습목표와 내용을 개발하기도 한다.
- 역량모델링에 의해 역량을 추출하는데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나, 어떠한 합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항상 그 결과는 만족하지 않다는 점이다[33]. 이러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추상화된 역량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핵심역량이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내포하여 논의가 용이해지는 반면, 실용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구체적으로 역량을 명시할 경우, 교과목 적용은 실용적이지만, 요구되는 내용을 모두 교과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어렵게 된다.
- 핵심역량을 정의하는 기준이 견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역량의 경우, 이러한 의식 성향이 장래에는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방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넘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등을 포함하는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이 교과중심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부가적인 능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교육과정에 주된 내용으로 취급하거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현실 적합성을 강조하여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력과 실천적 지식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지녀야 할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도입의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타당성에 근거하여 직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표준을 전문대학 직업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이를 교육내용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직업생활에 있어서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이 직업능력은 크게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직업능력

이란, 직업능력의 구성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국가에 따라 key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common skills, generic skills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 또한 직무 수행능력이란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이나 실무능력을 의미한다.

직업기초능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그 동안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5][6][19][22]. 이들의 선행결과에서는 표준개발 뿐만 아니라 자격 인증과의 연계, 교육과정에서의 활용 및 보급, 법적 및 제도화 등 관련 연구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핵심역량에 대한 영역분류에 [6]은 기초직업능력 표준을 10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22]는 9개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19]는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6개의 핵심역량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핵심역량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nos.hrdkorea.or.kr/>)에서 제공하는 기초직업능력(basic competency)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이는 교수매뉴얼 및 학생용 교재를 개

표 1. 핵심역량의 정의 및 하위요소

핵심역량	정의	하위요소
의사소통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의사표현, 기초 외국어
수리능력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기초연산, 통계, 도표분석 및 작성
문제해결능력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아인식, 자기관리, 경력개발
자원관리능력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자원 등 활용계획 및 분석	시간, 예산, 물적자원, 인적자원
대인관계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고객서비스
정보능력	업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업무에 적절하게 조직하고, 관리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컴퓨터활용, 정보처리
기술능력	업무에서 요구되는 수단, 도구, 조작 등 기술요소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능력	기술에 대한 이해, 선택, 적용
조직이해능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 경영이해, 업무이해
직업윤리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원관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 수준을 제시하여 활용성을 높여 줄 수 있고 적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시된 핵심역량은 10개 영역으로 [표 1]과 같다. 이러한 핵심역량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설정에 연계, 현재의 교과에 추가, 교과 교육과 연계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16]. 또한 해외 사례에서는 기존에 교과에 통합하여 적용시키는 방안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19][20].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편은 기존에 분절된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어 직업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교과를 배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까지 역량기반 교육모델을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기초직업능력 표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통합교과목 운영 방식

기존 전공교과의 학습내용에 핵심역량을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전공교과목 학습과정에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교수가 핵심역량에 대해 사전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학습법에 대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며, 교수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없거나 열성적이지 못하다면 이 방법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방법의 장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커다란 개편 없이도 단위 역량들을 모듈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융합교과목 운영 방식

기초직업능력 교과에 전공 교과 내용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공교과 담당 교수와 핵심역량 전문가간에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소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학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공 교과목 내용 특성이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적합할 경우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에 전공 실무 프로젝트 교과 혹은 기획사례실습 교과를 적용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이다.

· 독립교과목 운영방식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기초직업능력을 개발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현재 교양교육과정 또는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공통교양교과목으로 취급하거나 공통전공교과목으로 취급하여 개설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교과목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천적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진로와 직업관련 전담교수를 교수자로 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하나의 교과목에 각각의 핵심역량으로 하는 방법과 2~3개의 역량을 묶는 방법, 또는 기초직업능력 전체 핵심역량들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V. 결론

최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체제와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면서도 단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종합적인 직업교육 체제와 기능을 재정립해야하는 특징을 지닌다.

더군다나 전문대학은 학령인구의 절대부족 현상에 따른 입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학습능력의 저하, 중도탈락률 증가 등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전문대학 교육의 최대 목표는 직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므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양성시키는 것은 전

문대학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도,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찾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겠다.

첫째, 전문대학 직업교육과정이 최근에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문헌고찰을 통해 입증 하였으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방향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역량기반 교육 개혁의 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교육과정을 실천적 지식과 수요자 요구를 중시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변환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기초직업능력은 직업교육의 핵심역량으로서 전문대학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직업능력 표준을 전문대학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세우는데 일조하여 장차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의 한계로는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대학의 사례를 연구에 참고하지 못한 부분과 문헌고찰과 경험적 직관에 다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역량의 추출, 내면적인 요소들에 대한 행동모형의 객관성 확보 및 평가 방안,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 한 이후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만족도 비교분석 등에 대한 경험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경중, 김종우, “전문대학 교육과정 모형개발과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2] 강경중, 이근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발방안”, 농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79-113, 2003.
- [3] 김종우, 이용환, “전문대학 교수의 교수능력과 수행기준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1권, 제1호, 2009
- [4] 김진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농업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109-128, 2001.
- [5] 나승일, 장석민, 서우석, 김진모, 이성, “산업체 기초직업능력표준과 활용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 [6] 나승일, 정철영, 김주섭, 구자길, 김강호, 장현진, “기초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2호, pp.161-188, 2008.
- [7] 박민정,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4호, pp.173-19, 2008.
- [8] 박세일, 이윤철, “2010직업교육 선진화정책 토론집 자료2010-07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 [9] 박보영, “역량기반 치의학교육의 개념과 교육철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pp.215-235, 2008.
- [10] 소경희,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7권, 제1호, pp.1-20, 2009.
- [11] 소경희, 이상은, 박정열, “캐나다 퀘벡주 교육과정 개혁사례 고찰: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제17호, 제4호, pp.105-128, 2007.
- [12] 송경호, 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제34권, 제4권, pp.155-182, 2007.

- [13] 오현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문집, 제47권, pp.191-210, 2007.
- [14]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인간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회지, 제45권, 제3호, 2007.
- [15] 윤찬근, 이정표, "전문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
- [16] 이광우,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탐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제 2008-14호.
- [17] 이성호, 강경석, 임형택, "대학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개선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 [18] 이윤철, 김병조, 이철승, 임민영, 박수경, 윤문연, "선진직업체제 강화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2009-10호.
- [19] 임언, 최동선, 박민정, "미래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위원회 협동연구총서, 2008.
- [20] 이지연,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미국·프랑스·필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21] 정재창, 민병모, 김종명, "알기쉬운 역량 모델링", PSI컨설팅, 2008.
- [22] 정철영,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 [23] 정태화, 전종호, 홍광표, 이길순, 이병욱, "직업교육 혁신 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09-5호.
- [24] 최옥, "기업교육 체계수립 개발 사례: DACUM과 CBC의 비교", 교육공학연구, 제13호, 제 91-121호, 2002.
- [25] C. R. Finch and J. R. Crunkilton, "Curriculum development i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lanning, content, and implementation(5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1999.
- [26] G. Lum, "Where's the competence in competence-based education and training?". Journal of Philophy of Education. Vol.33, No.3, pp.403-418, 1999.
- [27] Mimistry of Education, Quebec education program, 2001.
- [28] R. Moore, "For knowledge : Tradition, progressivism and progress in education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debat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Vol.30, No.1. pp.17-36, 2000.
- [29] OECD.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 (DeSeCo). OECD Press. 2003.
- [30] R. Pring, Closing the gap: Lib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preparation. London: Hodder & Stoughton, 1995.
- [31] D. Rychen and L. Siganik,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ngrefe & Huber Publishers, 2003.
- [32] L. M. Spencer and S. M. Spencer,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민병모외 역.(1998).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서울: PSI컨설팅), 1993.
- [33] F. E. Weinert, Concept of Competence: A conceptual clarification. in D. S. Rychen, & L. H. Salganik,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ngrefe & Huber Publishers: Seattle, Toronto, Bern. 2001.
- [34] M. F. D. Young.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 From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to a critical theory of learning London : Falmer Press. 1998.

저 자 소 개

최 길 성(Kil-Sung Choi)

종신회원



- 1988년 2월 : 한밭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사)
- 1992년 2월 : 수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 1999년 2월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학과(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통신과 교수

<관심분야> : 교수·학습 기법, 교육과정 개발방법, 방송통신기술, 3DTV, 멀티미디어 콘텐츠